metro

메트로 2013년 12월 2일 월요일 www.metroseoul.co.kr

쾅! 쾅! 승리를 부르는 손

A등급 건설사마저 돈줄 '꽁꽁'

모델하우스 긴 만에 줄 섰지만 63% "내년 자금난 심화…오는 새해가 두렵다"

양도세 한시적 비과세 혜택 종료를 앞두고 분양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하지만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을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이 없어 내년을 걱정하는 건설사들의 목소리가 높다. 매년 입버릇처럼 말하던 '내년이 최대 고비'의 현실화를 앞두고 건설업계가 당면한 문제점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본다.

/박선옥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집중진단 '위기의 건설업'

[글 싣는 순서]
1. 돈맥경화 … 내년이 안 보인다
2. 잘만했던 해외에서 잇따라 발목
3. 건설 구하기 국회에 달렸다
4. 집은 사는 것 아닌 사는 곳
5. 건설사 스스로 변해야 산다

지난달 26일 두산건설 전날 감자 결정에 이어 유상증자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두산건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이날 장 시작과 함께 곤두박질친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내리며 1855원에 마감했다. 이후에도 주가는 계속 하락해 일주일 사이 20% 이상 뒷걸음질쳤다.

전문가들은 두산건설이 시장의 냉담한 반응을 각오하면서까지 감자·유상증자를 잇달아 감행한 이유는 신용등급 BBB+인 이 회사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신용 A등급의 한화건설은 오는 6월 발행할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지난 4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시공 능력 10위에 진입하고, 비교적 재무 구조가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투자자들의 투자 외면이 이어졌다. 건설사의 경우 A등급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최근 발행하려던 회사채가 자금 발행 목적이라는 점이다. 자금 발행에 실패할 경우 당장 현금으로 돈을 갚아야 한다.

◆미분양, 팔아도 안 팔아도 손해

지난 9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국내 건설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 소속 건설기업 532개사 중 내년 자금 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한 곳은 무려 63.2%에 달했다. 이 중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10.6%였다.

이는 곧 미분양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이상 자금의 위기가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총 6만4433가구다. 1세당 3억원씩만 계산하더라도 여전히 19조원 이상이 지어놓고 팔리지도 않는 아파트에 묶여있는 셈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도 문제지만 미분양을 팔았다고 해도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여기에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도 어려워져 내년이 정말 최악이 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최종전 추가시간 우승골 '포항의 기적' 1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울산 현대와의 2013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A그룹 40라운드 최종전에서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이 후반 추가 시간 6분 만의 팀 우승을 확정 짓는 김원일의 결승골이 터지자 함께 환호하고 있다. <관련기사 22면> /뉴시스

이지스함 6척으로 늘린다

2022~28년 전력화 목표

국방부가 이달 22일 열리는 합동참모회의에서 해군이 보유한 이지스함(7600t급)을 3척에서 6척으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1일 "대북 억지력을 높이고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지스함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군 수뇌부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동북아에서 해상 및 공중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 이지스함 추가 확보 방안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추가 건조되는 이지스함의 전력화 시기는 2022~2028년으로, 총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스함이 6척으로 늘어나면 주변국과의 해상 분쟁에 대비한 전략기동함대 일명 독도 '이어도 함대'의 구성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 /연합뉴스

밀어내기 앞으론 '철퇴'

공정위, 본사·대리점간 불공정 행위 규제고시 제정…과징금도 대폭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본사의 '밀어내기' 행포를 막기 위해 본사·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를 명확히 규율하는 제도를 마련해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실질 과징금 부과 수준도 대폭 강화해 솜방망이 처벌도 없앨 예정이다.

공정위는 1일 기업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재판매거래 고시'를 제정해 이달 중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고시에는 ▲물량 밀어내기(구입 강제) ▲판촉사원 인건비 등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이익 제공 강요)를 비롯해 계약에 부당한 거래 조건을 추가하는 행위(불이익 제공), 대리점이 주문한 내역을 본사가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대리점의 주문 내역 확인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유형별 명확한 거래기준 제시

공정위는 이번 고시에서 본사·대리점 간 발생 가능한 주요 불공정 행위를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해 명확한 거래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고시는 이달 행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과징금 감경 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실질 부과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도 개정해 2일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총 9개 감경 사유 가운데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 등급 기업에 대한 감경 등 3개 사유를 폐지하고 4개 사유는 감경 비율을 축소하거나 적용 기준을 엄격히 하도록 바꿨다. 부담 능력 부족이나 시장 경제 여건을 사유로 과징금을 대폭 축소하는 일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과징금 고시는 내년 1분기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하되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하는 한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장영일기자 jyi@metroseoul.co.kr

주억의 군것질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청계6가 청계천 판잣집에서 열린 '복원 8주년 추억세대 한마당'에서 학생들이 추억의 먹거리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치매, 주저하지 말고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 개통

연중무휴 365일 운영
전문가가 일대일 상담
정보·돌봄서비스 제공

"치매, 딱히 손쓸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모시고 살거나 요양시설에 맡기거나 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최근 4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노인 증가율은 26.8%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근거 없는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인해 치매 조기 발견과 치료에는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치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1일 '치매상담콜센터'를 개통했다.

치매상담콜센터는 기본적으로 정보 상담과 돌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 상담은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방식 등 정보 제공과 치매가 의심될 때나 치매로 진단을 받은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정부 지원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최근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제도와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환자의 상태에 맞는 혜택이나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치매상담콜센터 김희정 상담사는 개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맞춤형 상담이 가능한 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관련 학과 강사, 보건소 직원 등 치매와 관련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상담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

돌봄 상담은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생기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고민을 들어주는 등 고통받는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치매에 대해 말하기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힘들어하죠. 치매상담콜센터는 익명으로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소연도 하고 방법도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김희정 상담사는 치매 환자 가족들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치매상담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치매상담콜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치매 환자와 가족, 전문케어자, 치매에 대해 궁금한 일반 국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899-9988'로 전화하면 된다. 주요 상담 내용은 치매정보 365(http://www.edementia.or.kr)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매상담콜센터 개통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느라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 가족이 치매임을 드러내지 않고 상담을 원하는 경우, 야간에 상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하연 따스아리 기자

skyliu87@naver.com

※따스아리 기자는 보건복지부 대표 블로그(http://blog.daum.net/mohwpr)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기자단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음란 생중계

가정주부·모델 등 고용 2년간 25억 매출 올려

휴대전화 영상통화나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생중계로 음란 영상을 제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 영상을 제공한 혐의로 김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선정적 문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하는 여성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0초당 700원의 통화료를 부과해 2011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25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음란 방송을 한 여성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와 전직 화보모델, 취업준비생 등이었으며 월 350만~9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다혜기자

눈썰매장 나들이 가족 나들이 하기에 좋은 날씨를 보인 1일 경기도 가평의 눈썰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올해도 법 어기는 국회

11년 연속 예산안 처리시한 넘길 듯… 정기국회 3개월간 법안처리 '0'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이 다가왔지만, 올해 정기국회는 여야의 강경 대치로 3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 9월 2일 이후 국회에서 처리안 법안 수는 15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결 또는 부결된 게 아니라 당초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스스로 철회한 것들이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국회가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기게 됐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편성'의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상 첫 준예산 편성 우려

19대 첫 정기국회였던 지난해의 경우 여야가 싸우기는 했어도 9~11월 3개월간 119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철회나 폐기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처리 법안은 286건에 달했다. 2011년에도 같은 기간 5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올해는 여야의 대치를 끝내낼 만한 정치력이 전무하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준을 강행한 것에 반발해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언제쯤 국회가 정상화될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인 예정된 국무회의 이전에 황 감사원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모두 임명하면 민주당의 반발과 투쟁 강도가 더욱 거세지면서 국회 공전은 더 장기화될 전망이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뚫어져라…"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4학년도 전학사 정시 합격전략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지원 면허 관국 류고프를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뉴시스

'서울사랑티켓'으로 문화생활

추천작품 최대 60% 할인

서울시가 서울사랑티켓 12월 추천 작품에 대해 최대 60%까지 할인해주고 사랑티켓 지원 대상자에게는 7000원을 추가로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사랑티켓은 문화 향유 기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24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공연·전시 관람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2월 추천 작품은 작품성, 대중성, 연령대를 고려해 18개 작품이 선정됐다.

사랑티켓 홈페이지(http://www.sati.or.kr)를 통해 회원 가입하면 서울사랑티켓 사업에 참여하는 각종 공연 및 전시회를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2)741-1566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베이징원인 두개골 발견

1929년 12월 2일 중국 베이징 외곽의 저우커우뎬에서 중국의 고인류학자 페이원중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머리뼈 화석을 발굴했다. 이로써 인류 진화 과정에서 호모 에렉투스보다 앞선, 더 가까운 시대의 베이징원인의 완전한 모습을 복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베이징원인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곳에서 석기와 골각기, 불에 탄 뼈와 재가 발견되어 그들이 도구와 불을 사용했음도 밝혀졌다. 이 화석들은 그 당시까지 최초의 인류라고 여겨졌던 네안데르탈인보다 적어도 수만 년 이상 오래된 인류임을 증명했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오늘부터 칸당 2석씩 운영

서울시는 2일부터 지하철 1~8호선에서 열차 1칸당 2석을 '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임산부 배려석은 중앙에 위치한 7자리 중 양끝 2석에 지정된다.

시는 승객들이 임산부 배려석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좌석 위에 가로 세로 각 30㎝ 크기의 엠블럼을 붙이고, 안내 방송과 광고면 등을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4일 오후 4시부터 2·4·5·6호선 열차와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시민에게 임산부 엠블럼을 소개하고, 임산부에게는 '임산부 배려 가방고리'를 나눠주는 캠페인을 연다. /윤다혜기자

캠퍼스 이모저모

동원과기대 '글로벌 경영자 아카데미' 55명 수료 동원과학기술대학교(총장 장호익) 부설 DIST 아카데미는 지난달 27일 코모도호텔 부산 그랜드볼룸에서 '글로벌 경영자 아카데미 제4기'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는 55명의 원우들이 수료했으며, 원우회에서는 대학발전기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동주대 김휘영 교수 '자기학회 정기총회' 논문상

동주대는 이 대학 의료공학과 김휘영(사진) 교수가 오는 6일 평창 휘닉스파크 호텔에서 열리는 '2013년도 한국자기학회 정기총회'에서 논문상을 수상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자기학회는 자기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학문과 기술 향상 및 산업 진흥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1991년 6월 7일 설립, 허가된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부경대 평생교육원 '서비스투자사업 매뉴얼' 최우수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고성휘·사진)이 2013년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매뉴얼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부경대 교육원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한 이번 공모전에 '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 코칭' 등 매뉴얼을 출품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본 과정은 예비 부모, 미취학 아동 및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명한 부모 역할 정립과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자체 교재를 개발해 진단 상담, 미술치료, 해양레포츠 체험 등 자녀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폴리텍대 부산캠퍼스·웅상고 발전협력 손잡아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학장 도재윤·사진 오른쪽)와 웅상고등학교(교장 설학준·왼쪽)는 지난달 28일 대학 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학 협력 교류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교육정보 교류 및 공동 연구과제 개발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부산항 '컨' 물동량 증가세 주춤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올해 목표치인 1800만 개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화물은 145만9007개(약 6m짜리 컨테이너 기준)로 지난해 10월 실적(144만2000개)에 비해 0.9%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 10월 73만7000개였던 수출입 화물이 74만6000개로 1.1% 증가했다. 수출 화물은 2.8% 늘었지만 수입 화물이 0.6% 감소했다.

환적 화물도 증가세가 크게 꺾였다. 지난달 환적 화물 처리량은 70만9000개로 지난해 10월 환적 화물 처리량(69만7000개)에 비해 1.5% 증가했다.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부산항의 올해 컨테이너 처리 목표량인 1800만 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부산항의 10월까지 누적 컨테이너 물동량은 1464만7000개. 올해 남은 두 달 330만 개 이상을 처리해야 올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지만 월간 물동량이 150만 개 이상을 기록하기가 쉽지 않다. /연합뉴스

부산북부고용노동아카데미 수료식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지청장 김진태)은 지난달 28일 리라곤 호텔에서 '제3기 부산북부고용노동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인생2막, 운수업 어때요

'실버종합물류채용박람회' 벡스코서 13일 개최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채용 기회의 장이 마련된다.

2013 부산실버종합물류 채용박람회 사무국은 오는 13일 해운대 벡스코(제2전시장 4C홀)에서 '2013 부산실버종합물류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노인일자리사업 내 우수 사업단을 발굴, 홍보해 일자리사업의 우수성 및 노인의 주체적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 부산시노인취업교육센터, 부산연제시니어클럽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중장년 인생 2막, 희망을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주요 행사로 ▲운송업 관련 채용정보 제공 ▲전동스마트카트·전동세바퀴자전거 교육 ▲노인 취업 교육·노인 자원봉사 정보 제공 ▲커피대행사 및 서비스관 운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노인일자리사업 홍보관, 건강검진, 이미용 서비스, 체력 측정 서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특히 노인고용 운송 관련 희망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홍보를 실시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영역 확대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및 교육, 자원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만 60세 이상의 시민들은 행사 당일 신분증을 지참해 벡스코로 방문하면 무료로 행사 참여가 가능하다.

사무국 관계자는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노인일자리 실버종합물류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번 행사에 지역 어르신을 비롯해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가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51)851-2190 /정혜교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20m 트리…화려한 빛의 향연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내년 1월 5일까지 열려

지난달 30일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illegible] 열렸다. 광복로 440m 구간에 높이 20m 대형 트리를 비롯해 다양한 트리가 설치돼 화려한 빛의 거리로 물들었다. /연합뉴스

부산의 대표 겨울 축제로 자리잡은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축제'가 지난달 30일 개막해 화려한 빛으로 거리를 물들였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이 축제는 '사랑과 치유(Love and Healing)'라는 주제로 꾸며졌으며 이날부터 시작해 내년 1월 5일까지 37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올해 축제는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꾸며졌다.

메인 행사장인 중구 시티스폿에 20m짜리 대형 트리를 설치하고 그 밑을 걸으면서 빛 조형물인 '성탄의 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체험형 공간을 마련했다.

대형 트리 주위에는 매일 저녁 하루 한 차례 이상 인공 눈을 뿌려 시민이 축제 기간 내내 부산에서 눈 구경을 할 수 있게 됐다.

메인 트리를 기준으로 세 갈래 길의 행사장은 A, B, C 구간으로 나눠 각기 다른 주제의 조명 장식으로 꾸몄다.

광복로 입구에서 시티스폿까지 440m인 A 구간은 '크리스마스는 희고 선물'이라는 소주제로 실루엣존, 프러포즈존, 로맨나무 등 특별 포토존이 마련됐고 소망 트리와 빛 조형물이 설치됐다. 시티스폿에서 근대 역사관까지 이어지는 390m B 구간에는 언체 눈꽃 트리로 장식된 '힐링로드'가, 시티스폿에서 국제시장까지 330m C 구간에는 라운드형의 지그재그식 5m 터널 구조물이 10개가량 설치된 '천사의 축복' 거리가 각각 조성됐다. /연합뉴스

'찾아가는 아버지학교' 7일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오는 7일 사하구평생학습관 교육장에서 남성 대상 교육 '찾아가는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 돌봄 참여의 확대와 아버지의 역할 수행에 따른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부모로서의 자아감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김영신(동백중학교 교육복지사)의 '학습코칭 부모교육', '부모효능감 척도검사 및 자기주도 학습의 이해와 부모의 역할'로 강의한다. 이어 유재희 감정코칭 전문강사의 '감정코칭 부모교육, 이 자녀와의 소통을 위한 감정코칭 대화법' 강좌로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는 전화 신청 및 홈페이지(saha.familynet.or.kr)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 (051)203-4588

부산 앞바다서 잡힌 150kg짜리 돗돔 2마리 부산 앞바다에서 잡힌 150kg짜리 대형 돗돔 2마리가 지난달 30일 오전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위판됐다. 전설의 심해어로 알려진 돗돔 2마리는 500만원에 팔렸다. /연합뉴스

어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내년부터 전국 어가 대상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지원장 장옥진)은 내년부터 전국 어가를 대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어업인, 어업경영체(영어조합법인 등)이며, 어업 및 생산 현황 등의 경영 정보를 등록해 각종 수산정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 9월부터 2013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 실시 어가를 대상으로 시범 등록을 실시 중이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가의 신청에 따라 자율 등록 방식으로 추진된다.

등록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다.

어업인은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등록 경영 정보는 인력, 어업현황, 생산 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을 위해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55개 항목이다. 향후 수산사업 및 직불제 추진 등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을 일괄 등록한다.

부산지원 관계자는 "이번 등록제가 시행되면 어업경영체 정보와 시스템을 기존의 수산정책지원시스템 등 수산 분야 정보와 업무와 연계해 맞춤형 어업인 복지정책 개발 등 수산정책 추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관내(울산, 김해, 밀양, 양산) 지역의 어업경영체 등록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051-602-600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하균 기자 jhk@metroseoul.co.kr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겨울 선물

적십자사 부산지사 은행권 후원 이불 2300세대 전달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김종렬)는 지난달 28일 적십자 '희망풍차' 사업 결연 아동·청소년 760여 세대 등 동절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는 부산 시내 취약계층 2300여 세대에 겨울이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물품 지원은 전국은행연합회 후원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됐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매년 적십자사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단체다. 이번 겨울 이불 전달에는 적십자 봉사원과 함께 회원사인 부산 외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기술보증기금 임직원들도 직접 참여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적십자사는 작년 하반기에 '희망풍차' 사업을 출범해 아동·청소년, 노인,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적십자 관계자는 "이들 4대 취약계층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하균 기자

내일투어 부산지사 백미 300포 기탁 내일투어 부산지사(지사장 조경규)는 지난달 28일 중구청(구청장 김은숙)을 방문해 부산사옥 오픈기념 나눔쌀 기부 행사 일환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백미 300포(560만원)를 기탁했다.

해양 융·복합소재 신업화사업 본격화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최종 선정돼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와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시·도에서 공동 기획한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 사업'은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우리나라 섬유 소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오던 해양 융·복합 소재의 국산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 섬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기획한 첫 연구 개발(R&D) 분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2011년 제안됐다.

특히 국가 차원의 섬유 소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산업이 특화된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연계 협력키로 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뉴시스

market index <29일>

코스피	코스닥
2044.87 (-0.90)	517.06 (+1.54)
금리	환율
3.01 (+0.02)	1058.50 (-1.50)

대기업 대졸 초임 300만원 첫 돌파

1000명 이상 대기업에 입사한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이 처음으로 월 3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상여금 제외, 포함)은 월 265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55만4000원 대비 4.1% 상승한 수준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299인 기업이 233만9000원, 300~499인은 257만원, 500~999인은 268만2000원, 1000인 이상 기업은 300만1000원으로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어섰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310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운수, 창고 및 통신업 277만9000원, 제조업 262만2000원, 도매 및 소매업 261만3000원, 건설업 257만6000원의 순이었다.

직급별 초임은 부장 585만4000원, 차장 501만2000원, 과장 435만1000원, 대리 356만7000원이었으며 학력별 초임은 대졸 265만9000원, 전문대졸 231만7000원, 고졸 생산직 217만4000원, 고졸 사무직 194만원이었다.

올해 임금 협상이 타결된 기업의 평균 인상률은 4.0%로, 금융위기 여파로 1.4%에 그쳤던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이재영기자 ljy0403@

'금값'된 비트코인 거품 주의보

한달새 60배 폭등 '1비트코인=1200달러'… 국내 테마주 투자 주의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이 금값 취급을 받으면서 국내 관련 테마주의 몸값도 폭등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 거품을 경고하며 국내에서 테마주로 묶인 기업에 대해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7일에 사상 처음으로 1000달러를 돌파하고 1일 1200달러(약 127만원) 부근에서 거래됐다.

일본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도쿄 마운트곡스(Mt. Gox)에서 1비트코인은 지난달 29일 오전 1242달러까지 상승한 뒤 1일 오전 기준으로 1200달러대를 유지했다. 올해 초 13달러 수준이던 1비트코인 가격이 1년이 지나지 않아 91배 넘게 치솟았다. 특히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 10월 말(210달러)과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6배 급등했다.

가격으로만 치면 비트코인이 금에 상응하는 투자 상품이 된 셈이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내년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1250달러 선이다.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의 거품을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대표적인 경제 비관론자인 마크 파버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와 저금리 기조를 지속하자 주식과 채권은 물론,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과 농지 등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을 띄워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만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은 이용자 간 P2P(다자간 파일 공유) 방식으로 유통되며 정부의 통제나 세금, 환전 수수료 부담 등이 없고 익명 거래가 가능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한편 국내 증시에도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불어닥쳤다. 지난달 29일 코스닥 시장에서 PC 부품·주변기기 판매사인 제이씨현은 지난 25일부터 비트코인 관련주로 거론되면서 주가가 79.40% 급등했다. 제이씨현의 손자회사가 비트코인 채굴 전용 메인보드를 개발한 대만 에즈락의 국내 총판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테마주로 묶였다. 에즈락의 또 다른 국내 총판인 SGA는 닷새 연속 올라 이 기간에 30% 넘는 상승폭을 보였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튜닝카 열전 "촌스러워도 좋아" 국토교통부는 1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 꽃 박람회장'에서 '제1회 튜닝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튜닝카 경진대회에는 다양한 모양의 튜닝카가 출품돼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연합뉴스

"원화강세, 내년에도 지속"

금융가 사람들

현대증권 강현구 연구원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올해 1월 2일 1063.50원(종가 기준)으로 시작됐던 환율은 10일 만에 1050원대로 떨어지더니 11월 29일 현재 달러당 3.3원 내린 1058.2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증권 투자전략부 강현구(사진) 선임연구원은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가파르게 하락하며 연저점 수준에 근접했다"고 진단했다. 강 연구원은 "연내 환율 수준이 지지될 수 있는 요인이 외환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뿐이라는 점에서 내년 환율 역시 요주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 실적의 악화다. 환율이 1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한국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수출 실적이 악화돼 내년 경제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강현구 [illegible]

강 연구원은 "환율 수준만 놓고 보면 현재 상황은 지난해 말의 대비"라고 회상한 뒤 "지속되는 경상수지 흑자로 환율의 1000원 하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원화 강세(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순매수 확대 ▲글로벌 달러 약세 등을 꼽았다.

그는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시점 지연으로 인해 글로벌 달러의 약세가 지속됐다"면서 "이런 원화 강세 요인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내년 원·달러 환율은 상저하고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며 "내년 말 원·달러 환율은 1060원, 연평균 환율은 1044원을 제시한다"고 분석했다.

/김도지기자 [illegible]

로또복권 제575회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4	15	16	19	25	43	2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2,915,181,938
2등	5개 숫자+2등 보너스 숫자	70,355,404
3등	5개 숫자 일치	1,590,776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쇄인	당균호
사유·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택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53-2100
독자센터	(02)721-9881

2003년 8월 2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바00106

뉴스&뉴스

금감원 내년초 우리銀 검사

● 우리은행이 내년 초 금융 당국의 종합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초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해 국민은행과 같은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선지기자

은행창구 신분증 즉석 조회

● 내년부터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 위·변조 여부가 즉석에서 조회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에 일제히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각 지점 창구에 도입할 계획이다. /김선지기자

손, 발 질환치료 왜 중요할까?

발가락질환 「무지외반증」 주의!

미니금속나사 교정 절골술로 치료가능
초기에 치료하면 치료만족도 높아

치료 전

치료 3개월 후

발가락 때문에 고민인 여성들이 많다. 특히나 맘에 드는 신발도 신을 수 없는 휘어진 발가락은 또다른 콤플렉스가 되고 있다. 신발도 문제지만 엄지발가락 뼈 있는 부분이 아픈 것은 더 문제다.

이처럼 무지외반증 치료를 미루다가 엄지발가락 부분에 뼈가 튀어나와 신발을 신어도 아프고, 걸을 때도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병명은 무지외반증이라 부른다.

무지외반증의 증상은 계속 아픈것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쑤실 때는 무척 아플 수 있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괜찮다가도, 추워지면 더욱 쑤시고 아프다. 오래 걸으면 발부터 허리까지 통증이 욱신거리기도 한다. 이러한 무지외반증도 수술하면 툭 튀어나온 부분 및 쑤시고 아픈 통증도 치료 가능하다.

여성들에게 발병 빈도 높아

오랜기간 하이힐이나 앞이 뾰족한 구두를 신는 여성들의 체중이 엄지발가락에 집중되어 발가락에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무지외반증은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무지외반증은 정상적인 발의 보행이 힘들면서 무릎과 허리에도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그럼에도 발가락의 작은 부분이라 하여 질병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냥 체념한 채로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로 인해 무릎과 허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 고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치료 가능해

부산에서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엄지발가락은 인체에서 일종의 버팀목이자 지렛대라 할 수 있는데 이기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은 물론이고, 거동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지면서 자세도 비뚤어져 신체 여러부분에 질환을 앓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엄지발가락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이동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부위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걷기에 있어 조그만 변화나 무리가 있으면 우리의 발은 신체에 즉각적인 이상신호를 보내게 된다. 엄지발가락이 휘었다고 부르는 '무지외반증'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미루나 고통만 키우는 대표적인 엄지발가락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미니금속나사를 이용한 무지외반증 치료

상태가 심하지 않다면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교정깔창을 사용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변형된 정도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의 무지외반증의 치료는 〈미니금속나사 교정 절골술〉을 시행한다. 부산 당감동에 위치한 대한민국 정형외과 의원도 이 수술을 시행하는데 수술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엄지발가락 하단부위인 제1중족골 부위 한 곳을 절골해 엄지발가락의 위치를 바로잡는다. 이 때 뼈를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미니금속나사가 사용되는 것이다.

수술 부위에 맞는 미니금속나사를 선택해 부착하고 위치를 잡아주는 수술을 시행한다. 미니금속나사의길이는 약 1.8cm 이내로 짧다.

이준호 원장은 "미니금속나사는 부작용이 적고, 제거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며 "수술 후 미니금속나사를 제거 할 필요가 없어서 2차수술이 굳이 필요없어 환자들이 선호하는 편"이라고 설명한다.

시술 시 주의할 점은 간혹 시술 후 부종이나 운동 부정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준호 원장은 돌출한 뼈를 제거하는 건막류 절골술, 중족골(발등뼈)의 변형을 교정하는 시술, 발가락뼈를 교정하는 시술, 늘어난 관절낭을 탄탄하게 만드는 관절낭성형술 등 네가지 수술을 복합적으로 시행하여 재발을 걱정도 적다. 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진다.

수술 후 회복되면 목발 없이 걸을 수 있다. 재활치료 및 회복이 빠르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부담도 덜었다.

이준호 원장은 "무지외반증이나 내활성 족지발증은 엄지발가락에 가해지는 고통도 크지만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몸이 스스로 자세를 변형시키면서 균형을 흩트려서 생기는 합병증도 주의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는 교정이나 수술을 통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참기보다는 진단과 치료를 받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부산 대한민국 정형외과의원
문의 T.051)897-7582

※대한민국정형외과의원 홈페이지(www.대한민국정형외과.kr)를 통해 무지외반증, 지간신경종 이외에도 다양한 손과 발질환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오랜 경험과 수술 노하우를 비탕으로 손질환과 발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수부클리닉과 족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고운손과 편인한발을 위한 치료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임원 연봉 5억'에 칼댄 기업들

지난해 임원들에게 평균 5억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한 대부분의 기업이 올해 이를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에 대한 개별 보수 공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기업은 사업보고서 등에 연간 보수 5억원 이상 등기이사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재벌닷컴은 1일 지난해 등기임원 보수가 평균 5억원 이상인 12월 결산법인 219개사(상장사 190개사, 비상장사 29개사) 중 123곳(56.2%)은 올해 1~9월 지급한 등기임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임원 보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곳은 20개사. 이를 포함 임원 연봉 하락률이 30% 이상인 곳이 45개사, 10% 이상 하락한 기업은 81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나 일가족이 등기임원인 기업의 감소폭이 컸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등기임원 1인당 평균 보수가 18억2900만원이었고 9월 말까지 14억4400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올해 9월 말까지 평균 4억1500만원을 지급해 무려 71.2% 급감했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지난해 연간 등기임원 평균 보수가 19억500만원이었고 9월 말까지는 13억33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3억9300만원으로 70.5% 줄었다.

SK텔레콤, CJ제일제당은 60% 이상 하락했고, 네이버와 엔씨소프트도 50% 이상 감소했다. LG생활건강·SK네트웍스·GS건설·STX조선해양·E1·LG화학·LG상사·에스원 등도 하락률이 50%를 넘었다.

/김대균기자 [illegible]

'포털 다윗'들 힘든 계절

SK컴즈, '네이트' 올인 위해 싸이월드 분사 결정
'알약' 뿌리며 5위 오른 줌닷컴도 유저확보 한계

국내 검색포털 시장은 전형적인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 구도다. 1위 네이버와 2위 다음의 점유율을 합하면 90%다.

4위 네이트와 5위 줌닷컴의 합계 점유율은 2%에 그친다. 글로벌 포털 시장을 평정한 구글(국내 3위)을 제외하면 90%와 2%의 싸움인 셈이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트를 서비스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싸이월드와 2000만 가입자를 확보한 카메라 앱 '싸이메라' 사업을 분사하기로 했다.

점유율이 1%대에 머물지언정 광고수입이 가장 많은 검색포털 네이트를 끌고 가기로 한 것이다. 3분기 광고 수입이 127억원으로 네이버(3325억원)에 한참 뒤지지만 사실상 마땅한 수익원이 없는 싸이월드나 싸이메라보다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네이트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네이버, 다음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거의 매 분기 증가하고 있지만 SK컴즈의 경우 8분기 연속 적자에 빠졌다.

특히 성장은 이어가고 하락도 반복하는 검색포털 산업 특유의 관성을 감안했을 때 네이트가 하극상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이 회사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PC 메신저 '네이트온'도 30%대의 점유율을 자랑했지만 카톡 PC 버전의 등장으로 60%대 후반까지 추퇴한 상황이다.

인기 온라인게임 '카발'의 성공으로 일약 중견 IT기업으로 떠오른 이스트소프트가 서비스하는 신생 포털 줌닷컴도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

0점대 점유율에서 최근 1%대 진입에 성공했지만 이제부터 더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 이 회사가 제공하는 컴퓨터 백신 '알약'에 줌닷컴을 시작 화면으로 설정하는 기능을 통해 유저를 확보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알약을 사용하는 사람은 1300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검색포털 관계자는 "종합 포털로는 승산이 없다. 여성·노인, 여행, 요리, 육아 등의 전문 포털로 거듭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삼성 TV 득템했어요" 신난 美 블랙프라이데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뉴욕 웨스트나이액(West Nyack)에 위치한 베스트바이 매장에서 고객들이 삼성전자 TV를 구매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KT '알 무제한 이월' 제공

KT는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1일부터 '알 무제한 이월' 혜택을 제공한다.

KT는 LTE-알 요금제 5종과 알 스마트 요금제 4종에 대해 한 달간 사용하고 남은 알이 없어지지 않고 다음달로 이월돼 누적되며, 이월된 알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데이터·음성·문자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15만 알 이상 누적되면 더 이상 적립되지 않으며, 이월 기간은 청소년 요금제 이용 기간 동안 제한이 없다.

아울러 KT는 월 5만2000원에 기본 알 6만2000알, 데이터 2.5GB, 문자 무제한을 제공하는 LTE-알 520 요금제와 월 1만1500원에 기본 알 1만2000알, 메시지 전용 알 750알을 제공하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인 키즈알115(3G·LTE)를 새롭게 출시했다.

/이재영기자 [illegible]

와콤 터치펜, 이마트서 판매

와콤의 최신 터치펜이 전국 이마트 13개 지점에 입점된다.

1일 한국와콤에 따르면 인튜어스 크리에이티브 스타일러스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비롯해 전국 이마트 매장 13개 지점에서 판매된다.

인튜어스 크리에이티브 스타일러스는 아이패드에서 스케일 드로잉, 페인팅을 할 수 있는 2048단계의 펜 압력 감지 기능을 갖춘 디지털 펜이다. 아이패드에서 실제 종이 위에 펜을 쓰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장윤희기자

프린터·오디오·밥솥… 일상, 근거리무선통신과 접속

근거리무선통신(NFC)을 활용한 IT 제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NFC는 이용방식이 간단하고 불필요한 선을 줄이게 돼 실용성과 심미성, 상품성 면에서 두루 각광받는 중이다.

특히 NFC는 올 하반기 프린터 시장의 핫이슈였다. 삼성 스마트 프린터 NFC는 스마트폰을 프린터에 가까이 대는 방식으로 단말기에 저장된 사진과 문서를 출력하게 한다. 이 제품은 한국표준협회의 한국품질만족지수 평가에서 프린터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HP도 최근 기업용 복합기 최초로 NFC 기술을 탑재한 레이저젯 엔터프라이즈 800 시리즈를 내놓았다.

LG전자도 신제품 출시에 NFC 기능을 적극 도입하는 중이다. LG 클래식 오디오는 스마트폰을 가까이하는 것만으로도 음악 재생을 돕는다. 앞서 LG전자는 즉석 프린터 '포켓포토'에도 NFC 기능을 탑재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일명 '장동건 밥솥'으로 불리는 쿠첸은 전기밥솥에 NFC 기능을 적용해 업계에 화제를 모았다. 스마트폰으로 메뉴 선택 후 단말기를 밥솥에 갖다대면 자동 조리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이 국내에 들어온 약 4년 전부터 업계는 NFC 기능을 주시해왔다"면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NFC 탑재 제품 출시가 봇물을 이루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보조금 '제한' 아니라 '투명화'

동일한 단말기 구매자간 가격차별 없애는게 법안 목적

Issue&View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하 단통법)'을 놓고 찬반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 제조사 입장을 중심으로 한 단통법 반대론과 정부 및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 찬성론이 맞서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론 흐름을 의식하며 잇따라 기자들을 대상으로 단통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언론을 통해 벌어진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도 한 언론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단통법 시행 시 보조금이 줄어 휴대전화 가격이 올라가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고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이중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미래부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하자, 미래부와 방통위, 공정위 측은 즉각 공동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들 부처는 "미래부와 공정위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단통법상 제조사 조사 제재 조항(제9조 제1, 2항)과 관련해 공정거래법과 이중 규제의 문제가 없도록 수정안을 마련하고 협의 완료한 바 있다"며 "공정위가 제조사의 이중 규제 문제로 법안에 반대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주장으로 반대 여론이 지속 형성되는 모습에 대해 업계에서는 제조사 측이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단통법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이들은 단통법 추진 시 더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고 국민들의 혜택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하지만 단통법의 핵심 역시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다만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려금의 투명화를 통해 이용자 간 차별을 없애자는 게 핵심이다. 같은 단말기라도 지역, 구입 시기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와 이통사, 소비자단체, 대리점과 판매점마저도 단통법을 통해 가계 통신비 인하 가능성을 점친 상황에서 과연 제조사가 자사 이익만을 위해 반대 목소리를 고집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난 소중하니까" 관리하는 남자들 맞 대결 롯데백화점은 1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외모를 꾸미는 데 많은 돈을 쓰는 열맨 '로엘족'을 선발하는 '미스터 로엘을 찾아라'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결선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개성 있는 패션을 당당하게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영화 앞둔 우리은행 노조선거 '후끈'

우리은행 노동조합 선거가 오는 3일로 다가온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4명 후보들의 선거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앞두고 있어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 노동계는 물론 정·재계와 일반 국민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장 후보에는 전상춘, 임혁, 박원춘, 윤성현 후보(기호순)가 등록을 마치고 경쟁 중이다. 모든 후보들이 전·현직 노동조합의 경력을 갖춘 후보라는 점에서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사내인터넷망, 내부 e메일 등이 차단돼 후보들의 선거 전략과 공약 등을 공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리은행 노조 측은 전했다.

우리은행 노조 관계자는 "과도한 선거 홍보물에 대한 우려와 조합원들의 '알 권리 보호'의 두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은행 내부의 인지도가 약한 상급단체 활동이 많았던 후보들에게 더욱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우리은행 노동조합 선거에서는 민영화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의 오랜 문제인 타 은행과의 급여 격차 해소, 전환직군 문제, 인사연수 문제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다만 1차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에 실패할 경우 민영화를 앞두고 정부와 경영진에 맞설 수 있는 동력을 잃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각 후보들은 3일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저마다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민지기자 minji@

애드라인 송석배 상무, 사장 승진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라인은 광영관리본부 송석배 상무를 사장으로 승진 발령 냈다고 1일 밝혔다.

애드라인은 트루젠, 한국스마트카드, K2, 용평리조트, KT&G, 누리미디어스, 대우건설, 대림건설, 구글 등의 광고를 제작하고 있다.

뉴스 & 뉴스

SPC그룹 연탄배달 봉사

● SPC그룹이 겨울을 맞아 사업장 인근 소외 이웃을 대상으로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1일 밝혔다.

SPC그룹 임직원들은 지난달 29일 '안제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양재동 본사 인근에 위치한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을 직접 배달하고, 쌀과 각종 보온용품을 기증했다.

아이 영양간식 레시피 경연

● GS리테일은 지난달 30일 수퍼맘이 제안하는 우리아이 영양간식 레시피 경연대회'를 열었다.

행사엔 전국 예선을 거쳐 선발된 10명이 참가했으며 김선애(경기도 시흥)씨의 '치즈감자 & 달콤 고소 고구마 핫도그'가 영예의 1등을 차지했다. 또 떡과 불고기로 맛을 낸 진선미씨의 '떡불고기를'과 '햄과 치즈가 곁들여진 정은씨의 '햄치즈 팬케이크'가 각각 2, 3등을 차지했다. 이들 수상작은 실제로 GS수퍼마켓의 신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신원철기자

매달 구성 다른 티박스 사무실 배달… 조식 베이커리 뷔페에 '나이트 딜' 서비스…

유통업계 "2040직장인 잡아라"

유통업계에서 경제활동의 핵심층인 20~40대 직장인을 겨냥한 이색 마케팅이 한창이다.

SNS를 자주 활용하는 요즘 직장인들은 정보 확산이 빠른 데다 경제력도 뒷받침돼 해당 서비스나 제품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 주요 타깃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직장인 이색 서비스는 감성적인 구매보다는 실용적이고 유용한 제품을 선호하는 직장인들의 소비 특성을 반영해 일상에서 느끼는 갈증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 특징.

기능성 차 전문업체 티젠은 과도한 당분과 카페인 섭취에 부담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니즈를 간파해 '스마트 오피스 티박스' 서비스를 출시했다. 회사 내에서 다양한 차를 받아볼 수 있는 오피스용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로 직장인 당분 섭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커피믹스를 다양한 기능성 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매달 색다른 구성으로 제공돼 새로운 구성에 대한 기대감과 다양한 차를 골라 마시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는 직장인의 니즈를 반영한 조식 서비스도 있다. 엔제리너스커피는 바쁜 오피스족을 겨냥해 오전 7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직장인이 많이 방문하는 점포를 중심으로 '조식 베이커리 뷔페'를 운영하고 있다. 1인당 5000~7000원을 내면 매일 아침에 구운 베이커리와 과일, 커피, 우유 등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무교점과 여의도잠지회관점, 석촌호수DT점, 제주중문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오피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장할 계획이다.

사무실 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한데 모은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도 등장했다. 미미박스의 '오피스 레이디 박스'는 회의나 미팅 등 타인과 교류가 많은 직장인을 겨냥해 위생적이고 깔끔한 이미지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모아 제공한다. 구성품으로는 물 없이 머리를 감을 수 있는 드라이샴푸와 데오드란트 티슈, 옷에 밴 음식 냄새를 제거하는 섬유향수 '미스트' 등이 있다.

모바일 쇼핑업계는 오후 6시에서 12시까지 매출이 급증하는 점을 반영해 퇴근하는 직장인을 겨냥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G마켓 큐레이션 쇼핑몰 G9는 모바일 전용 쇼핑 앱을 출시하고 퇴근하는 직장인을 겨냥한 '나이트 딜' 서비스를 시작했다. 옥션은 지난 7월 퇴근 시간 동안만 한정 수량 상품을 특별 할인가에 판매하는 '올킬AM PM'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정영일기자 jyi@metroseoul.co.kr

캐릭터 상품으로 소비자지갑 연다

'라바' 케이크 등 출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여 지갑을 여는 것은 유통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크리스마스 등을 앞두고 유통업계는 다양한 상품 및 이벤트를 잇따라 선보이며 열띤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 및 이벤트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캐릭터 산업은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작년 국내 캐릭터 산업 총 매출액은 7조 9600억원으로 추산되며 매년 5% 이상 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케이크부터 화장품과 호텔 패키지까지 더욱 다채로워진 호텔 패키지 등 캐릭터를 활용해 고객의 마음을 잡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실제로 뚜레쥬르는 '애니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현재 최고 인기 캐릭터인 '라바(Larva)'를 활용해 케이크 2종과 젤리 신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두 제품 모두 케이크 받침대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라바가 들려주는 신나는 생일 축하 노래도 들을 수 있어 생일 축하 선물로 제격이다.

맥도날드에서는 12월 '해피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헬로키티'를 선정했다. 뒷면에 눈 결정체로 장식한 헬로키티 에디션은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퓨전 이탈리안 레스토랑 서가앤쿡 강남CGV점은 오는 31일까지 산타클로스 포토존에서 코카콜라 산타 캐릭터와 함께 인증샷을 찍어 문자메시지, 코카콜라 트위터에 올리면 매일 두 명을 추첨해서 서가앤쿡 무료 식사권 또는 코카콜라 무료 담요를 증정한다.

롯데호텔 서울은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마이 드림 크리스마스 패키지'를 판매한다. 슈페리어 객실에서의 1박과 조식 뷔페 2인, 와인과 꽃, 호텔 베이커리에서 제공하는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포함됐으며 테디베어 아티스트 조연오가 디자인한 크리스마스 스노우베어도 선물로 준다.

/김민지기자

15가지 스피커 귀마개 골라봐 휴플러스는 1일 올겨울 이색 방한 상품으로 스피커 귀마개를 출시했다. 총 15가지 스타일로 귀마개에 스피커가 달려있어 이어폰 잭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가격은 1만6600원.

/휴플러스 제공

<1인 가구>

싱글턴 겨냥한 소포장 비타민 '봇물'

현대 직장인들은 업무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로 하루하루 바쁘고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영양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지만 바쁜 업무와 피곤함 때문에 자신의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쉽다.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는 직장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성분과 기능 강화는 물론 직장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섭취와 휴대의 편의성을 높인 소포장·소용량 제품들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길 이동 바다가 손쉽게 구매하기를 원하는 직장인들의 성향에 맞춰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과 드러그스토어 등으로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현상 등을 반영한 대표적인 제품이 비타민류다. 비타민은 빛과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한 통에 다량의 캡슐이 들어있는 제품이 아닌 PTP(Press Through Pack) 소포장 형태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PTP 소포장은 캡슐을 낱개로 포장하기 때문에 산화 걱정이 없어 제품의 안전성을 높여주며,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먹을 수 있어 간편하다. 또 필요할 때 캡슐 한 정씩 빼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섭취가 가능해 1인 가구에 제격이다.

에디카코리아의 씹어 먹는 비타민 '비타민트(VITAMINT)'는 영국산 비타민 C, 독일산 비타민 B2, 녹차 추출물, 자일리톨 등이 고루 함유된 추어블 비타민이다. 하루 1정 복용만으로도 비타민 C와 비타민 B2의 하루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으며 휴대가 간편해 바쁜 현대 직장인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정영일기자

<어둠 속에서 조용히 힘을 키운다>

中, 도광양회는 끝났다?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시진핑 지도부 판단…일본 아니라 미국 겨냥한 것"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역내 안보에 대한 새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인식 변화다."

지난달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 정도로 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역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안보 등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 짜기'에 나섰다는 것.

이와 관련, 홍콩 주간지 야주주간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으며, 최종 결정은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 이후 내려졌다고 전했다.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중국 정부의 새로운 외교 방향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안징둥(袁勁東) 시드니대 교수는 "중국이 자국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새 지도부는 20년 이상 계속된 지지세 도광양회(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힘을 키운다) 외교 정책을 끝낼 때라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저우 중산대의 데이비드 주이 교수는 "새 지도부는 국가 안보와 영토 보존 문제를 긴급 해결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의식한 움직임"이라고 풀이했다.

일각에서는 방공식별구역 선포 뒤에 중국 해군의 제1열도선 돌파를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동중국해 중간선에 있는 제1열도선(규슈~오키나와~대만)을 순조롭게 지나가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제1열도선은 냉전 시절 중국이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설정한 해양 감시선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1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정부 청사 근처에 배치된 군인들이 반정부 시위대를 막아서고 있다. /AFP 연합뉴스

"태국 친-반정부 시위대 충격전 5명 사망"

태국에서 친정부 시위대와 반정부 시위대가 충돌해 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잉락 친나왓 총리 정부를 지지하는 '레드셔츠' 진영과 반정부 시위대가 전날 방콕 외곽의 체육관 인근에서 충돌,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레드셔츠 운동가 4명과 람캄행대학교 학생 1명이 사망했다.

위티엇 림자런삽 람캄행대학교 총장은 "학생 2000여 명이 아직 교내에 있어 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친정부 시위대 수만 명은 1일로 예고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맞서기 위해 전날 체육관에 집결했다. 인근에 위치한 람캄행대학교 학생들은 이들에게 야유를 보냈고 결국 이런 시비가 붙었다.

앞서 반정부 시위대는 1일을 승리를 위한 '디데이(D-day)'로 선포, 잉락 총리의 퇴진과 '탁신 체제' 근절을 위한 이번 시위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시위가 고조되자 정부는 경찰 2만여 명을 배치한 데 이어 군 병력 약 3000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조선미기자

"월드컵 경기장 붕괴는 인재"

metro Brazil

위험성 알면서도 무시

2014년 월드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브라질 상파울루시의 이타케라웅 월드컵 경기장의 구조물이 무너져 정부의 각종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이미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의문이 제기돼 사건이 더 큰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상파울루시 건설노동자조합의 안토니우 지 소우자 라말류 위원장은 "경기장의 공사 안전 책임자가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붕괴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으며 또한 "사고 당시 공사장의 토양이 물을 머금어 크레인 받침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라말류는 "붕괴의 위험성을 공사 책임자와 기술자에게 제기했지만 무시했고 결국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를 끌어올리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며 브라질 공사안전 기술자 연합회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은 바 있다고 밝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를 담당한 오데브레시치 사는 "건설노동자 조합이 이타케라웅구장의 건설 노동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위험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메트로 브라질·정리=손동명 인턴기자

미성년자, 카마수트라 사이트 접속 금지

metro Russia

최근 러시아소비자감독원이 선정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웹사이트에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접속을 완전 봉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소비자감독원 대변인 바짐 암페론스키는 "이번 조치는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넘쳐나는 자극적인 정보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암페론스키는 "예술적 표현이라고 해도 그것이 미성년자의 올바른 성(性)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해가 된다면 아동의 나이에 따라 접속이 제한될 수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고대 인도의 성애(性愛) 경전인 카마수트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소비자감독원이 관련 사이트를 직접 감독하거나 차단시키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해당 사이트의 업무가 일시 중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라디 나조셰보바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떠오르는 가요계 샛별 엔씨아

국민 여동생 '아이유'를 보는 것 같다. 인형 귀여운 외모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가요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 엔씨아(19·본명 임소은)가 두 번째 싱글 '오 마이 갓'으로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고 있다. 풋풋한 소녀지만 다양한 끼를 갖추고 있는 것은 마치 아이유 데뷔 시절을 보는듯 하다. 엔씨아는 최근 tvN '응답하라 1994'에서 연기력,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는 음악성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자신의 이름에 담긴 '뉴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New Creative Artist)'라는 의미처럼 새롭고 신선한 음악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엔씨아를 만나봤다. /유정은기자 yuu@metroseoul.co.kr

<노래에 살고 노래에 죽는다>

SNS 거부하는 '노생노사' 18세 소녀

▶ **쉽지 않은 선택**

올해 18세인 엔씨아는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어 학창 시절을 보내야 할 나이지만 홀로 무대에 오르는 쉽지 않은 선택을 했다. 부모님의 거센 반대까지 무릅쓰고 힘든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노래였다.

"중학교 시절부터 노래를 좋아해서 고등학교 진로를 정하는 게 쉬웠죠.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할 때 나는 노래를 하고 싶다고 느꼈고, 그래서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를 지원했죠. 예고 지원은 연예계 데뷔가 목적이 아니라 학교 수업으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매력이 컸어요."

어린 나이에 가수의 길을 선택하는 데 부모님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엔씨아는 "예고를 선택했을 때도 아버지께서 '지금 성적은 유지하고 시험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 될 것'이라며 반대가 심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수 데뷔 후 가족들의 모습이 바뀌었다고 한다.

엔씨아는 "무뚝뚝한 아버지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신문도 챙겨 보시고 사진을 저장해놓을 정도다. 또 남동생 컴퓨터를 켜놨는데 검색 단어에 '엔씨아'가 뜨더라. 내심 웃겼다"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 **소통을 위해 소통 차단?**

가요계는 그야말로 걸그룹이 대세인 시대다. 멤버들끼리 서로 의지하는 그룹과 달리 솔로 가수로 활동하는 건 결코 쉽지 않다. 엔씨아는 SNS와 휴대전화 데이터 차단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소통의 활로를 찾았다. 최근 SNS를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연예인들과 다른 행보다.

엔씨아는 "음악 방송에 출연하러 가면 걸그룹 친구들은 즐겁게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혼자니까 외롭고 심심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다른 가수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SNS와 스마트폰 데이터를 차단했다. 덕분에 이제는 걸그룹 와썹의 수진, 우주, 틴트의 미니 등 친구들도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팬들과의 소통을 줄였지만 오히려 당찼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유명해지고 싶다거나 인기를 얻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없다"며 "노래에 애정이 있고 가수로서 노래를 잘하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노래는 물론 연기까지**

엔씨아는 최근 인기몰이 중인 '응답하라 1994'를 통해 연기에 도전했다. 그는 나정(고아라)의 남동생 쓱쓱이(육성재)의 여자 친구로 등장하며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교복차림의 수수한 모습으로 신인 연기자 같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숨은 매력을 선보였다.

부모님 거센 반대에도 가수 길
두번째 싱글 '오 마이 갓' 인기
소통 위한 통로는 현장 스킨십
나만의 색깔로 음악 보여줄 것

엔씨아는 "연기를 배워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하나 떨리는 마음이었다"며 "표정 하나부터 말투, 행동 모든 것이 중요해 정말 어려웠다. 새삼 연기하는 모든 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기자보다 가수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했다. "앞으로도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음악이든 엔씨아만의 색깔로 표현하는 가수가 되는 것이 목표에요. '엔씨아라면 믿고 들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엔씨아가 되겠습니다."

디자인/박은지

■ **프로필**

이름 NC A(엔씨아)
생년월일 1993 10 07
신체 162cm 40kg
학력 한림연예예술고 실용음악과 재학 중
취미 공포영화 보기, 옷 리폼하기
데뷔 2013 04 싱글 '교생쌤'
경력 2013 06 싱글 '교생쌤', 2013.11 14 싱글 '오 마이 갓', 곰TV '서든 어택 일전사' VJ

star bag

행사 가던 중 교통사고 사망

영화 '분노의 질주'로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폴 워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워커의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워커는 자선 행사를 위해 친구의 차를 타고 가다가 LA인근의 한 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해당 차량은 폭발했다.

계약 만료…새 둥지 물색중

배우 이준기가 자유계약(FA) 시장에 나왔다.

그는 내년 2월 소속사 IMX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얼마 전부터 새 기획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에는 JYJ·설경구 등이 소속된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접촉하고 있다는 설이 불거졌다. 그러나 해당 기획사는 "이준기와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 겨울' 日 라이브쇼 호평

가수 거미가 빼어난 가창력과 유창한 일본어로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팬들을 사로잡았다.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국제포럼 홀에서 열린 프리미엄 라이브쇼에서 거미는 드라마 OST로 인기를 끌었던 '눈꽃'의 라이브 무대로 오프닝을 장식했고 자신의 일본곡 '신지테루' '미안해요' 등을 불렀다. '그 겨울…'은 8월 일본 지상파 TBS에서 방송돼 높은 시청률을 올리며 '제2의 겨울 연가'로 주목받았다.

中 '보이스 오브 월드' 참석

강타가 한국 대표로 중국 '보이스 오브 월드' 콘서트에 참가해 한류스타의 위상을 높였다.

강타는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 우커송 체육관에서 열린 공연에서 '상록수' '북극성' 등 발라드로 부드러운 매력을 전했고, '가면' '스폰셋' '더 베스트' 등 히트곡을 새롭게 편곡한 무대에서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시했다. 엠넷 '보이스 오브 코리아 시즌 2'에서 강타의 멘티로 우승을 차지한 이예준과 듀엣으로 '엔드리스 러브'도 불렀다.

'응사' 인기 하이킥 어디까지…

13회 시청률 9.6% 곧 10% 돌파할 듯… OST도 히트 잇따라

화제 속에 방영 중인 tvN '응답하라 1994'가 인기 지상파를 압도하는 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복고 열풍을 불러일으킨 '응답하라 1997'의 속편인 이 드라마는 지난달 30일 방송된 13화 '1만 시간의 법칙' 편의 시청률이 전편보다 0.4%포인트 오른 5.6%(닐슨코리아 유료 플랫폼 가입자 기준)를 기록하며 또 한 번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11.5%까지 치솟았다.

이는 케이블·위성·IPTV 통합 동시간대 1위는 물론 tvN 메인 시청 타깃인 20~49세 시청층에서는 지상파를 포함해 1위의 기록으로 조만간 평균 시청률이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OST 시장에서도 1990년대 히트곡을 재해석한 음원이 공개될 때마다 줄줄이 히트하며 지상파 OST를 압도하고 있다.

두 개월의 김예림이 부른 '행복한 나를'이 지난달 29일 공개 직후부터 1일까지 각종 음원차트에서 종합 순위 1위를 장악 중이다. OST 주간 순위에서도 성시경의 '너에게' 하이니의 '가질 수 있는 너', B1A4의 '그대와 함께' 로이킴의 '서울 이곳은' 등 무려 4곡이 10위권 내에 올라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국내 드라마 검색 순위에서도 SBS '상속자들' KBS2 '왕가네 식구들'을 제치고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한국갤럽이 발표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조사에서는 '무한도전' '오로라 공주'에 이어 3위에 올랐고, 콘텐츠 파워지수(CPI-Content Power Index)에서는 3주 연속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화제몰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방송에서 쓰레기(정우)·나정(고아라)의 첫 키스와 나정을 짝사랑하는 칠봉(유연석)이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더욱 흥미진진한 삼각 관계를 예고했다.

/박진영기자 tsk0427@metroseoul.co.kr

원조아이돌 클릭비 11년만에 돌아온다

원조 아이돌 그룹이 줄줄이 컴백하며 가요계가 풍성해지고 있다.

원조 아이돌 밴드 클릭비(사진)는 11년 만에 컴백 무대를 갖는다. 클릭비는 14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DSP미디어 패밀리 콘서트 'DSP 페스티벌'에 참여한다. DSP미디어에는 걸그룹 카라·레인보우·에이젝스 등이 소속돼 있다. 이날 무대엔 현재 현역 군 복무 중인 에반(유호석)을 제외한 6명 멤버(우연석·김태형·오종혁·김상혁·하현곤·노민혁)가 오른다.

원조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 멤버 제이워크(장수원·김재덕)도 컴백을 앞두고 있다. 제이워크는 지난달 29일 미니 앨범 '러브 페인밸리'의 수록곡 '첫눈 오는 날'을 선공개했다. 제이워크는 선공개곡 '첫눈 오는 날'을 포함해 4곡이 담긴 미니 앨범 '러브 페인밸리'를 12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god도 전격 컴백한다. god 데뷔 15주년을 맞는 내년 3월 음반 발표를 기획하고 있다. 특히 god는 팀 해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멤버들이 모인다면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정해진기자 vine@

PHOTO

두 훈남 보기만해도 '훈훈' 우월한 비주얼로 여심을 녹이는 SBS 수목극 '상속자들'의 이민호와 김우빈이 촬영현장에서의 다정한 모습을 공개했다. 차은상(박신혜)을 사이에 두고 다투는 김탄(이민호)과 최영도(김우빈) 역을 연기 중인 이들은 극중 상황과는 정반대로 대기 시간에는 마치 다정한 연인처럼 이어폰을 나눠 끼고 음악을 듣는 등 훈훈한 선후배의 케미를 나누고 있다.

▶ 김은숙 작가님 둘이 잘되는 스핀오프는 어떨지 /유순호기자

3주째…김재중 앞에 아무도 없었다

中 음악프로그램 1위

국내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고 있는 JYJ의 김재중(사진)이 중국 공영 방송 CCTV의 음악 전문 채널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다.

김재중은 CCTV15의 '진취예단'에서 정규 1집 타이틀곡 '저스트 어나더 걸'로 3주 연속 정상에 올랐다. '진취예단'은 주 3회 30분씩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가장 인기 있는 한국 가요를 선정해 발표한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중국 최대 뮤직비디오 사이트인 인웨타이에서 4주 연속 1위에 올랐다.

정규 1집 'WWW'은 록을 기반으로 소프트록, 브릿팝,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담아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일본·대만·홍콩 등 아이튠즈 12개국 1위를 차지했고 일본 타워레코드 일간차트 1위와 오리콘 주간차트 1위, 빌보드 월드 아시안 뮤직차트 2위를 기록했다.

앨범 발매를 기념해 아시아투어를 진행 중인 김재중은 서울, 일본 요코하마, 대만 타이베이를 거쳐 7일 중국 난징에서 공연한다. /유순호기자 sunei@

"오늘은 뉴스가 많은 날입니다"

뉴스룸에서
어 충 건
<편집위원>

지난주 11월 28일 목요일 한 방송의 앵커는 정시 뉴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평소와는 달리 "오늘은 뉴스가 많은 날입니다"라고 첫 멘트를 날렸다. 매일 뉴스를 접하고 전달하지만 그날만은 유독 '비중 있는 기사가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다소 흥분한 앵커는 첫 뉴스로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특위를 단독 소집,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청문특위 회의장을 보여준 뒤 뉴스는 곧바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곧 신당 창당을 공식화할 것"이라며 잠시 뒤 현장을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도만 해도 핫이슈가 많은 날로 볼 수 있었지만 앵커는 계속 큰 뉴스를 쏟아냈다. 오전 중 열리는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 측에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CADIZ) 조정을 강력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초대 주월사령관을 지낸 채명신 장군의 영결식과 안장식도 예정되었다고 주요 뉴스로 보도됐다.

그날의 오전 뉴스는 속보로 이어지면서 오후 들어 빅뉴스로 자리 잡았다. 오후 2시 넘어 상정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의 긴급 의사 일정 보이콧이라는 후폭풍을 맞았다. 급기야 내년도 예산안은 실제 준예산 편성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철수 신당 뉴스도 결국은 다음 대선 경쟁 구도 내지는 정치권 빅뱅 등의 예상이 이어지면서 시간대별 예언 뉴스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한·중 국방대화 기사는 "중국 측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다소 거북한 기사로 바뀌면서 더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여당 단독 처리", "안철수 신당" 등 진부한(?) 뉴스와 차별화된 뉴스도 그날 주목을 받았다.

김황식 전 총리가 "국회해산제도가 있으면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정치권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치권에는 딸 말을 한 그에게 당연히 뉴스 포커스가 맞춰졌다. 2013년 11월 28일, 마치 한국 정치를 압축해놓은 듯한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정치권 뉴스가 끝난 후 앵커는 곧은 병사묘역에 안장된 고 채 장군의 안장식을 담담하게 전해 여운을 남겼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난 올 12월의 첫날. 여야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관성대로 상대방만 때리는 형국이다.

'안철수 신당'이 주목받는 이유

정론탁설
유 병 팔
<언론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해 대선 때 불었던 '안철수 신드롬'이 가셔지는 듯했으나 여전히 깊은 여운이 남아있다. 지난달 28일 안 의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새 정치 추진위원회' 출범을 선언하고 자신의 정치를 세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한국 정치의 재편, 삶의 정치, 국민 통합 등을 내세우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적어도 그 이전에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신당' 추진 선언 직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을 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사연)의 발표에 따르면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37.9%)보다는 10%포인트 낮지만 민주당(12.1%)보다는 2배 이상 높은 27.3%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안철수 신당이 여야 간 극한 정국에 따른 반사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새로운 정당이 나서서 새 정치의 물꼬를 터주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라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국회는 극단적인 정쟁으로 예산론까지 나올 정도며 새 정부 들어 한 해가 다 되도록 식물 상태다. 국내적으로는 서민 경제가 한없이 무너져 민심 문제가 시급한 가운데 종교계까지 정쟁에 가세하면서 극단적인 혼란이 조장되고 있는 중이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매우 위험할 만큼 미·중·일 간 패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안철수 신당이 갈수록 냉각되는 정국을 다소나마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철수 신당은 새로운 정치의 구체성이 매우 빈약하고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정치 철학도 빈곤하다. 비록 창당 전이기는 하지만 안 의원이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적어도 새 정치를 펼치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특히 참여할 인재 영입 원칙과 방법은 물론 조직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지지 기반을 넓히며 정당다운 정당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 현재 거론되는 주요 영입 인사를 보면 현실 정치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거나 기존 정당에서 소외된 인사를 중심으로 짜맞추기 인상이 짙다. 자칫하다가는 야권 분열을 조장해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제 애매모호한 이미지를 벗어나 실체를 적시하며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제3당, 나아가 제2당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포토프리즘

명동의 외국인 관광객 눈인 특급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두터운 외투에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거리를 걷고 있다. 이른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긴 했지만 찬바람을 맞은 관광객들의 표정에는 한겨울이 이미 다가와 있다. /손진영기자 son@

IT한류의 '국적 포기'

기자수첩
장 윤 희
<정치산업부 기자>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한쪽에는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 상품이 진열돼 있다. 라인이 일본 메신저 시장 점유율 70%를 넘는 등 인기를 끌자 해외 관광객을 겨냥해 비치한 것이다. 일본 하네다공항 기념품 가게에도 라인 열쇠고리가 걸려있다.

라인은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의장이 해외시장을 겨냥해 추진한 브랜드다. 사업 초기 극심한 부진을 겪었지만 현재는 내년 이용자 5억 명을 목표로 할 정도로 폭풍 성장 중이다.

그렇다면 라인의 국적은 한국인가? 한국인이 만들었으니 한국 태생이라 할 수 있으나 라인의 입장은 다르다.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라인 이용자 3억 명 돌파 행사장에서 이 의장과 라인 주식회사 엄원진은 라인이 특정 국가로 규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소 당혹스러운 발언이었지만 글로벌 메신저로 거듭나려면 지역색을 벗어나야 한다는 라인의 입장에는 일부 공감했다.

한때 전 세계적 인기를 끈 소니는 '메이드 인 재팬'을 내세우지 않았다. 1990년대 북미 시장에서 소니는 미국 브랜드란 믿음이 퍼질 정도다. 이는 국적을 드러내는 것이 해외 진출에 언제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경영 전략에서 나왔다. IT 제품은 품질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자부심도 있었다.

IT는 전통 음식과 달리 탈국적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갤럭시 시리즈의 세계적 흥행은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었다고 홍보해서 다은 것이 아니다. IT 한류를 향한 거시적 안목을 강화할 때다.

몸 말, 몸 글

인문학 산책
김 만 웅
<성균회대 교수>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생각한다." 서체 디자인으로 명성이 높은 안상수 선생과의 대담에서 듣게 된 이야기였다. 손과 뇌는 직결되어 새로운 상상력과 시도를 하는 일종의 수단이자 작업의 현장이기도 하다는 논지다. 우리의 화제는 이내 우리말과 글로 옮아갔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말과 글은 몸 말과 몸 글이다.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ㅇ'부터 'ㅁ'과 'ㅂ' 등 입술소리에 이르는 구강구조의 흐름에 따라 그 체계가 잡힌 자음은 물론이고, 음과 양의 구조를 확연히 보여주는 'ㅗ'와 'ㅜ' 등은 생명의 기운이 어디에서 비롯돼 어디로 가는지를 일러준다. 이를테면 몸의 인문학과 생명철학이 우리말과 글에 그대로 담겨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운이 위로 오르면 우리는 '솟구친다'고 한다. 그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면 '숙'이라고 표현하며, 그것이 아주 절멸하면 '숙'이 '죽'이 되고 김팽 '죽'으로 변해 '죽다'가 된다. 땅의 기운이 바다로 휘어져 가면 그곳은 '곶'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땅 위에 피어나면 '꽃'이 된다. 우리는 배움도 '먹는다'고 말한다. 언어의 육화를 주시하는 것이다. '뱃속의 사커면 생각'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배우다'도 '배'에서 나온 말이다. '아이를 배다'도 그렇고 뭔가를 배우는 것도 다 '배', 즉 몸 안에서 뭔가 깊숙이 꿈틀거리며 새로운 생각과 지혜의 싹이 태어나는 과정이 된다. 겉으로 슬쩍 지식이 되는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일깨움이다. '알다'도 '알', 즉 생명의 근원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뜻한다.

파주에 세워진 안상수 선생의 디자인 학교(파주 타이포 그래픽 인스티튜트-PaTI)에서는 학생들을 '배움이', 그리고 교장은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준다고 '날개'라고 부른단다. 알에서 시작해 뱃속에 새로운 생각을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가는 청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내 그려진다.

몸과 생명, 그리고 생각과 말과 글은 우리에게는 서로 따로 떨어져 분리된 존재들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많은 말들과 글이 허공에서 부서져 사라지거나 종이에만 박혀있는 물체로 그치고 있는 것만 같다. 몸이 되지 못하는 말, 땀 흘린 손에서 태어나지 않은 생각들이 쓸개를 지고 있는 탓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마음도 좋고 생각도 기르는 몸을 만드는 훈련이 절실해진 시대가 아닐까?

'집으로' '용의자'… 한국영화 빅4 승자는

첫 2억 관객 돌파 앞둔 12월 극장가 국내외 기대작 줄줄이

집으로 가는 길

최초 2억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12월 극장가에 작품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국내외 기대작들이 넘쳐난다.

한국 영화 관객 수는 지난달 28일까지 1억1478만6645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기록(1억1461만3190명)을 이미 넘어섰다. 외화를 포함한 기록도 1억9144만 명으로 지난해 기록(1억9489만 명)을 곧 넘어설 전망이다.

12월에는 국내 4대 투자·배급사들의 올해 마지막 역작들이 경쟁하고 가족 관객을 겨냥한 할리우드 대작들이 줄줄이 개봉하면서 관객 수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 영화 빅 4 팽팽한 흥행 대결

칸의 여왕 전도연의 탄탄한 연기력이 빛나는 '집으로 가는 길'이 12일 관객과 만난다. 2004년 37세의 평범한 주부 장미정씨가 남편 지인의 부탁으로 여행 가방을 옮겨주다 프랑스 오를리공항에서 검거돼 2년간 대서양의 외딴 섬에서 마약사범으로 수감됐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다. 미남 배우 고수가 호흡을 맞추고 '용의자X'에 이어 1년 만에 돌아온 방은진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19일에는 송강호가 주연한 '변호인'이 개봉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일화를 소재로 해 제작 단계부터 화제를 모았고 3주간 이어지는 전국 시사회로 바람몰이를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언론시사회 이후 호평이 이어지며 흥행에 기대를 모은다. '설국열차'와 '관상'으로 올해에만 19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한 송강호의 티켓 파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같은 날 개봉하는 '캐치미'는 연말 분위기에 걸맞은 데이트 무비다. 완벽한 프로파일러 이호태(주원)와 10년 전 첫사랑인 전설의 대도 윤진숙(김아중)이 쫓고 쫓기며 벌이는 로맨스를 다룬다.

공유는 여성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업고 '도가니' 이후 2년3개월 만에 새 작품인 '용의자'(24일 개봉)로 돌아온다. 최정예 특수요원 지동철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벌어지는 추격전을 그린 영화다. '세븐 데이즈'의 원신연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 공포·판타지·SF 다양한 외화

'인시디어스: 두 번째 집'(5일 개봉)은 '컨저링'보다 더 무서운 영화로 화제를 모은다. 올해 '컨저링'으로 국내에서 역대 공포 장르 외화 최다 관객(226만 명)을 동원한 제임스 완 감독의 신작이다. 잠에서 깨지 못하는 아들을 유체이탈로 데려온 후 기이한 현상을 겪는 가족과 그 집에 얽힌 비밀을 그린다.

국내 예고편은 잔인한 장면이 없음에도 너무 무섭다는 이유로 등급 심의에서 이례적으로 청소년관람불가를 받았다. 본편은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12일 개봉하는 '호빗: 스마우그의 폐허'는 우여곡절 끝에 에레보르의 산에 도달했던 빌보 배긴스(마틴 프리먼) 일행이 본격적으로 에레보르를 지배한 스마우그와 맞닥뜨리는 내용을 다룬다. 골룸의 과거, 호빗족이 절대 반지를 보관하게 된 사연 등 '반지의 제왕' 시리즈와 이어지는 내용들이 대거 담겨 팬들의 기대감을 높인다.

엔더스 게임

24일 개봉하는 '엔더스 게임'은 올해 마지막 블록버스터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외계 종족 포믹의 침공 이후 멸망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하기 위해 엔더(아사 버터필드)가 벌이는 사상 최대의 우주 전쟁을 그린 작품이다. 탄탄한 원작 위에 화려한 영상으로 볼거리를 더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헝거게임>

영화 뜨니 원작도서도 뜨네

온라인서점 판매순위 1위

영화 '헝거게임: 캣칭 파이어'(사진)가 지난달 21일 개봉된 후 원작 도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영화의 원작 시리즈인 '헝거게임', '캣칭 파이어', '모킹제이' 세트가 1일 현재 온라인 서점 예스24와 알라딘의 e북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북 판매 사이트인 북큐브와 리디북스, 인터파크 e북 주간 판매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이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 조정래의 '정글만리', 공지영의 '높고 푸른 사다리', 혜민 스님의 '완생 수업' 등 인기 작가들의 신간 베스트셀러를 앞선 결과다. 국내에서 영화 흥행 성적은 개봉 10일째인 30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 수 79만7597명에 그치고 있지만 원작 도서의 인기는 높아 주목된다.

홍보사는 "영화가 개봉한 후 완성도에 대한 관객들의 호평이 이어져 원작 도서의 판매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헝거게임: 판엠의 불꽃'의 속편인 이 영화는 헝거게임의 승리로 혁명의 상징이 된 캣니스를 없애기 위한 독재국가 판엠의 음모로 역대 우승자들을 모은 헝거게임이 개최되면서 캣니스가 절대 권력에 맞서 모두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을 시작하는 과정을 그렸다. /박진환기자 gh4927@

日 SF 블록버스터 러시

'플래티나 데이터' 개봉 이어 3D애니 '캡틴 하록'도 선봬

두 편의 일본 SF 블록버스터가 올겨울 한국 관객을 찾는다.

미스터리 추리물의 대가인 히가시노 게이고의 동명 소설이 원작인 '플래티나 데이터'가 12일 개봉한다.

히가시노 게이고와 '바람의 검심'의 오오토모 게이시 감독의 조합으로 화제를 모으는 이 영화는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DNA 프로파일링으로 범인 검거율 100%를 자랑하는 수사 시스템을 기획한 천재 과학자 카구라 류헤이(니노미야 카즈나리)가 범인으로 몰려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개봉을 앞두고 공개된 포스터는 배우이자 일본 인기 그룹 아라시의 멤버인 니노미야 카즈나리가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는 듯한 오묘한 표정을 지은 모습으로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총 3000만 달러(약 330억원) 규모의 제작비가 투입된 3D 애니메이션 '캡틴 하록'도 내년 1월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1970년대 국내에 방영된 TV 애니메이션 '하록 선장'을 비롯해 '우주전함 야마토', '은하철도 999', '천년여왕' 등으로 애니메이션계에 큰 획을 그었던 SF의 거장 마츠모토 레이지의 데뷔 6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작품이다.

이 영화는 하록과 그를 돕는 미메·케이 등 원작에서 익숙한 캐릭터를 재등장시키고 새로운 캐릭터를 대거 추가해 장대한 우주 전쟁 이야기를 새롭게 완성했다. 화면도 실사를 방불케 하는 화려한 그래픽으로 재탄생됐다. 제70회 베니스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서 3D로 첫선을 보여 호평받은 바 있다. /박진환기자 gh4927@

멀티밤 하나면 온몸 촉촉

건조한 겨울피부 위한 수분관리 알뜰 아이템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환절기일수록 각질은 물론 건조한 피부로 인한 갑작스러운 트러블이 쉽게 일어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위별 케어 제품을 챙기면 좋겠지만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지출 부담도 크다. 이에 각질이 일어난 두피와 피부, 습진·발진 등 보습과 진정·완화 효과가 필요한 부위에 바를 수 있는 멀티밤이 인기다.

세기의 미녀 클레오파트라가 미모 유지와 피부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애용한 알로에는 화장품과 약으로서도 주부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 있다. 김정문알로에의 '큐어 플러스 크림'은 건조해지고 손상된 피부를 보호해 주는 전신 피부 보호용 크림이다. 알로에 아보레센스가 함유돼 무릎·팔꿈치·발꿈치 등 건조하고 거칠어지기 쉬운 부위에 바르면 좋다. 또 주부습진이나 아이들 기저귀 발진 등으로 손상된 피부에 사용하면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 건강한 피부로 가꾸는 데 도움을 준다.

닥터자르트의 '세라마이딘 멀티밤'은 세라마이드 성분에 뛰어난 보습력을 가진 6종의 에센셜 오일을 더한 고보습 멀티밤이다. 수분 보유 능력을 향상시키고 피부 본래의 유연성과 탄력성 회복에 도움을 준다. 메이크업 위나 피부 전체에도 사용 가능하다.

연약한 아기 피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성인까지 가족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입소문 타고 있는 멀티밤이 있다. 퓨어엠의 '퓨어밤'은 피부 보호 및 유연 효과가 우수한 시어버터 함유로 촉촉한 피부 유지에 효과적이다. 또 발진·접촉·벌레 물린 곳·건조하고 갈라지는 피부 등 트러블이 발생한 부위에도 효과적이다. 겨울철 입술에 립밤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한방 내림발효 성분과 내부 멀 오일의 보습 효과로 트러블을 케어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한방 멀티밤도 있다. 궁중비책의 '궁중비책 효72 멀티 큐어밤'은 100% 국내산 한방 약재를 담양산 대나무 통에 넣고 발효의 효능이 최고점에 달하는 72시간 동안 자연 발효시킨 것이 특징이며 항균 소취 기능으로 발효하는 동안 유해균 미생물의 번식이나 발효 특유의 냄새를 잡아준다. /명정인기자

스트레칭, 다른 계절의 1.5배

겨울철 러닝시 주의할 점

얇은 옷 여러개 겹쳐입고 러닝화는 살짝 여유있게 운동강도 70~80% 수준만

찬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짜릿함이 한겨울 '질주 본능'을 깨운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는 근육이 움츠러들어 부상의 위험이 커지는 만큼 달리기 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스포츠 브랜드 써코니 관계자는 "활동량이 줄어드는 겨울철에는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러닝 시 수칙을 숙지하고 자신에게 맞는 용품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부상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겨울 운동 시 두꺼운 옷을 껴입는 것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훨씬 따뜻하다. 상의의 경우 가벼우면서 보온성이 우수하고 땀을 빠르게 흡수·배출해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한다. 보온력이 좋은 다운 재킷이나 방수·방풍 기능의 바람막이 재킷이 적당하다. 하의는 활동성을 고려해 신축성이 있는 팬츠를 고른다.

옷처럼 못지않게 신발도 중요하다. 겨울철에는 근육이 경직되기 쉬우므로 쿠션감이 뛰어나고 관절에 무리가 없는 가벼운 러닝화가 제격이다. 발볼 부분이 꽉 끼지 않고 발등과 복사뼈 주변이 신발에 닿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신발을 신고 구부렸을 때 앞쪽에서 3분의 1 부분이 부드럽게 접혀 발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제품이 적당하다.

운동 전후 스트레칭 시간은 다른 계절에 비해 1.5배 길게 하고, 실내에서 약간 땀을 낸 후 밖으로 나가 본격적인 러닝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면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평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난방비 아껴주는 내복 입으세요" 1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온 가족 내복입기 프로젝트 상품인 셀라렌 가공처리 내의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내복으로 체온을 지키고 난방비를 절감한다는 취지로 4일까지 겨울 내의전 품목을 10% 할인 판매한다. /연합뉴스

여기도 저기도 화장품 증정 이벤트

뷰티 업계가 피부가 민감해지기 쉬운 겨울을 맞아 다양한 캠페인을 벌인다.

스킨케어 브랜드 아벤느는 트러블·홍조 등 민감성 질환에 대해 알리는 '피부 민감도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벤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민감도 셀프 체크 리스트를 제시하고, 배송비으로 아벤느 온천수를 그대로 담은 클렌저 크림·스프레이 등을 추천한다.

아비노는 6일까지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변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친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름다운 변화' 이벤트를 실시한다.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한 고객 중 1000명을 선정해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춰라이징 로션 체험분 키트 2개를 증정한다. /박지원기자

'매력덩어리' 육우 회식자리마다 지글지글

한우보다 담백·부드러운 육질 30~40% 저렴
최근 문연 구이점 '열려라 참깨' 등급별 가격 '신뢰'

연말연시를 앞두고 저녁 모임이 많아지는 요즘 국내산 육우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맛과 가격을 동시에 해결하는 최적의 회식 메뉴로 떠오르고 있다.

육우는 같은 등급 기준으로 한우와 품질 차이가 없지만 한우보다 최고 40% 저렴하고 수입 냉동 쇠고기보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육우는 얼룩소인 홀스타인종 가운데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된 수소로 태어날 때부터 전문적인 사육을 받으며 고기 소로 키워진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육우는 한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품질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육우가 한우보다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특히 육우는 사육 기간이 20개월 정도로 짧아 한우에 비해 30~40% 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

육우는 HACCP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쇠고기 이력제, 원산지 표시제 등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 도축 즉시 냉장 유통돼 신선도도 높다. 수입 냉장·냉동 쇠고기는 해동과 냉동을 반복하는 데다 도축 후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30~45일이 걸리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진다.

또 육우 고기에는 지방 분해를 돕는 카르니틴 성분이 풍부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 게다가 모든 국내산 쇠고기의 등급 판정은 동일한 기준에서 이뤄져 한우 1등급과 육우 1등급은 같은 맛을 낸다.

이런 가운데 맛·가격·안전성 등 삼박자를 갖춘 육우를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이 탄생했다. 지난 10월 7일 문을 연 '열려라참깨'(http://www.열려라참깨.kr)는 국내산 소고기 구이 전문점이다.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의 중랑역 인근에 위치하며 2층 규모로 140여 석의 식사 공간과 정육점 코너를 갖추고 있다.

'열려라참깨'는 국내 최초로 소고기 등급별 가격 자동제를 도입했고, 산지 가격에 따른 가격 자동 조절제도 시행 중이다. 소비자는 육우를 먹으며 소고기 이력 정보 및 등급 판정을 인터넷에서 즉시 확인할 수도 있다.

노민호 열려라참깨 대표는 "고기를 14일간 섭씨 4도에서 진공 숙성해 가장 맛있는 상태로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게 다른 고깃집과의 차별점이다"고 설명했다.

'열려라참깨'는 NH의 회원조합인 서울우유 계열사가 세운 음식점으로, 육우 소비를 목적으로 한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육우 시장 활성화가 지체돼 육우 송아지 가격이 한때 1만원까지 폭락하며 낙농업계 종사자들이 시름을 앓았다"며 "육우의 가격·품질·경쟁력을 알려 축산농가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바람 가르는 실루엣 '예술'

다운사이징 통해 연비효율 18% 향상 이그제큐티브 '감탄'

임의택의 차차차

■ 포르쉐 파나메라 4S

포르쉐 하면자연스레 911 이 떠오르던 때가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911 과 '박스터' 2가지 자종으로 판값은 버텨왔기 때문이다. 그러던 포르쉐가 10여 년 전부터 방향을 바꿨다. 스포츠카만으로 살아남기 힘들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래서 나온 차가 SUV '카이엔'이고, 이후 쿠페 '카이맨'이 더해졌으며 럭셔리카 시장을 넘보는 '파나메라'까지 등장했다.

이번에 시승한 파나메라는 2세대 모델로, 2009년 데뷔 후 4년 만의 모델 체인지다. 변화 범위는 크지 않다. 에어 인테이크는 키우고 헤드램프는 역동적으로 다듬었다. 뒤쪽으로 더 기울어진 앞유리 덕에 실루엣은 더 길어 보이고, 넓어진 뒷유리로 시인성을 높였다.

파나메라는 큰 덩치로 인한 나쁜 연비가 약점이었는데, 다운사이징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 4S와 S 모델에는 기존의 V8 4.8ℓ 엔진을 대체하는 V6 3.0ℓ 바이터보 엔진을 장착했다. 새 엔진은 기통 수와 배기량을 줄였지만 최고 출력은 20마력 증가했고 최대 토크는 2.04㎏·m 늘어났다. 연비 효율도 18% 이상 좋아졌다.

강철과 알루미늄, 마그네슘을 적절히 혼합한 자체 중량은 1870㎏이다. 파나메라보다 덩치가 약간 작은 신형 제네시스 3.8 AWD가 2000㎏에 이르는 데 비하면, 파나메라의 경량화는 더욱 돋보인다.

이런 데이터는 실제 주행 감각에서 증명된다. 효율 좋은 PDK 변속기와 어우러진 엔진은 1750~5000rpm의 넓은 구간에서 최대 토크를 맘껏 뿜어낸다. V8 4.8ℓ 엔진을 얹은 구형이 3500~5000rpm 구간에서 나오던 것에 비하면 활용 구간이 한층 넓어졌다.

이번 모델 체인지에서 눈에 띄는 건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이그제큐티브 모델의 추가다. 전기로 충전해 구동하는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직 국내에서 선보이지 않지만, 휠베이스가 150mm 늘어난 이그제큐티브 모델은 경쟁 럭셔리카들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기존 파나메라의 뒷좌석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탓에 일부 수요층의 이동도 점쳐진다.

문제는 포르쉐의 가격 정책이다. 파나메라 4S의 기본 가격은 1억6990만원. 여기에 플로어 매트(30만원)가 포함된 코리안 패키지는 3500만원. 추가 옵션(4290만원)까지 모두 더하면 2억3350만원이다. 있으면 좋을 만한 사양을 옵션으로 돌려놓은 탓에 기본 가격은 의미가 없다. 포르쉐의 모든 모델이 이런 식의 가격 구조를 갖고 있다. 현대차 못지않게 '옵션 장난'을 친다고 지적받는 이유다.

파나메라는 독특한 플래그십 모델을 찾을 때 눈여겨볼 만한 차다. 그러나 911 같은 운동 성능을 기대하는 이는 실망할 수도 있다. 포르쉐 하면 911을 떠올리는 이들에게 파나메라가 외면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임의택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한 줄 평 파워는 높이고 연비를 개선했다. 옵션 정책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평점 ★★★★(별 다섯 개 만점)

벨로스터 터보 그 이상 '튜익스 레이싱' 달린다

현대자동차가 벨로스터 터보에 최고급 타이어와 휠 등 다양한 고성능 사양을 더해 주행 성능과 개성을 한껏 높인 튜익스(TUIX) 레이싱 모델을 2일부터 출시한다.

튜익스는 커스터마이징의 다른 표현인 튜닝과 혁신, 표현의 의미를 가진 이노베이션, 익스프레션의 합성어다. 자동차의 외관 및 성능에 대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대차가 지난 2010년 선보인 커스터마이징 브랜드다.

튜익스 레이싱 모델은 현대차가 세계 최고 모터스포츠 대회인 월드 랠리 챔피언십(WRC)에 내년부터 참가하는 것을 기념하고자 강력한 성능을 지닌 벨로스터 터보의 고성능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튜익스 레이싱은 ▲미쉐린의 18인치 고성능 타이어 ▲레이즈의 18인치 블랙 휠 ▲레드 색상으로 도색된 브레이크 캘리퍼 등으로 구성됐다.

튜익스 레이싱 모델의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차량 계약 시 주문하면 되며, 차량 출고 후 추가 구매 및 장착은 향후 현대차 정비망인 블루핸즈와 블루멤버스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된다.

/임의택기자

K7·K5도 하이브리드 연비 16.8㎞/ℓ 매력있네

기아자동차는 2일부터 전국 기아자 지점을 통해 이달 16일 출시 예정인 K7 하이브리드(사진)와 K5 하이브리드 개조차의 사전 계약을 실시한다.

K7 하이브리드 700h는 159마력, 21.0토크의 세타 2.4 MPi 엔진과 35KW의 전기 모터를 장착, 16.0㎞/ℓ의 연비를 구현했다. 이는 경차 연비(모닝 1.0가솔린 A/T 기준 15.2㎞/ℓ)보다 낫고 동급 가솔린 모델(K7 2.4 가솔린 A/T 기준 11.3㎞/ℓ) 대비 40% 이상 개선된 수치다.

K7 하이브리드 700h와 동시에 출시하는 K5 하이브리드 500h는 16.8㎞/ℓ의 연비를 실현했고, 150마력, 18.3토크의 누우 2.0 가솔린 엔진과 35KW의 전기 모터를 장착했다. 또 K5 하이브리드 500h는 차세대 회생 제동 시스템을 적용해 제동 거리와 제동감을 개선했고 ▲윈드실드 이중 접합 글라스 적용 ▲가솔 흡차음제 보완을 통해 소음과 진동을 억제하고, 착좌감이 개선된 디자인 시트를 적용했다.

/임의택기자

대형차시장, 신형 제네시스의 반격 통할까

현대차가 최근 신형 제네시스를 출시해 국내 대형차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대형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닌 수입차 업계에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사다.

제네시스는 V6 3.3ℓ와 3.8ℓ 가솔린 2종의 엔진을 얹었고, 4660만~6960만원의 가격에 팔리는 대형차다. 이 세그먼트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와 BMW 5시리즈, 아우디 A6, 렉서스 GS, 인피니티 M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중 BMW 5시리즈는 세그먼트 1위뿐 아니라 전체 수입차 시장에서 단일 모델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형 제네시스는 올해 1~10월 동안 1만264대가 판매됐다. 이는 지난해 1만5381대보다 33.3%포인트 줄어든 실적이다. 반면 수입차 업계는 돋보이는 실적을 거뒀다. 아우디 A6는 같은 기간 6719대가 팔렸고, BMW 5시리즈는 1만2548대(M버전 제외) 팔리며 제네시스를 능가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역시 1만1328대(AMG 제외)가 팔렸다.

이에 반해 렉서스 GS는 313대에 그쳤고, 인피니티 M시리즈도 287대가 팔려 독일 라이벌에 크게 뒤진 실적을 나타냈다. 한국도요타는 지난해 뉴 GS를 출시하며 "매월 200대씩 팔겠다"고 공언했으나, 10개월간 2개월 목표치도 못 채우며 망신을 당했다.

신형 제네시스는 각종 신기술과 편의 장비로 무장해 수입차를 구매하려는 예비 고객을 끌어들일 전망이다. 우선 4륜구동 시스템 'HTRAC'가 매력적이다. 아우디와 BMW, 메르세데스 벤츠, 인피니티가 모두 4륜구동 모델을 갖춰 폭설이 예상되는 겨울철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렉서스 GS는 4륜구동 모델이 없어 시장 공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차의 서비스 전략도 주목받고 있다. 제네시스 고객에게 5년간 매년 1회 '찾아가는 정기점검' 서비스를 마련했다. 동급에서 이런 서비스를 시행하는 업계는 현대차가 유일하다.

/임의택기자

대한항공 이달말 희망퇴직 실시

대한항공은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2일부터 17일까지 희망원을 접수해 12월 말에 희망퇴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희망퇴직을 하는 직원들을 위해 2년 한도로 가급금은 지급하며 퇴직 후 학자금, 직원용 항공권 등 재직 시에 준하는 복리후생도 제공한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임의택기자

손흥민 또 멀티골 쐈다

3주만에 정규리그 5-6호

손흥민이 1일 독일에서 열린 뉘른베르크와의 경기에서 후반 31분 두 번째 골을 넣은 뒤 관중석을 향해 두 팔을 높이 들어 손가락으로 하트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손세이셔널 손흥민(21)이 소속팀 레버쿠젠의 승리의 파랑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손흥민이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면 팀은 어김없이 승리하고 있다.

손흥민은 1일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끝난 2013~2014 정규리그 14라운드 뉘른베르크와의 홈경기에서 결승골과 쐐기골을 작렬시켜 팀의 3-0 승리의 주역이 됐다. 레버쿠젠은 11승1무2패 승점 34점으로 리그 2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달 9일 함부르크와의 12라운드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손흥민은 이날 혼자 2골을 몰아 3주 만에 멀티골을 터뜨렸다. 올 시즌 6골로 정규리그 득점 랭킹 공동 13위에 올랐다. 슈테판 키슬링(9골), 시드니 샘(7골)에 이어 팀 내 득점 3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6골 2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이 공격포인트를 따낸 정규리그 경기에서 레버쿠젠은 모두 승리를 차지했다.

손흥민은 8월 브라이부르크와의 정규리그 개막전(3-1 승)에서 결승골이자 정규리그 1호골을 작성했고 7라운드 하노버전(2-0 승)에서는 시드니 샘의 추가골을 도왔다. 조금씩 살아난 득점 본능은 지난달 9일 친정팀 함부르크와 만난 12라운드에서 폭발했다. /정용훈기자

'1분의 기적' 포항 1점차 우승

울산에 1-0 대역전극 데얀 3년연속 득점왕

1일 오후 울산광역시 문수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13 K리그 클래식 최종전 울산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에서 포항이 1대0으로 승리해 우승을 확정짓고 황선홍 감독과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신욱(25·울산 현대)이 프로리그 소속팀은 지키지 못했다.

김신욱은 1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3 40라운드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최종전에 결장했다. 39라운드 부산전에서 경고를 받아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한 김신욱은 소속팀 울산의 0-1 패배를 그라운드 밖에서 지켜봐야 했다.

이번 시즌을 21승11무6패(승점 74)로 마친 포항은 울산(승점 73)을 승점 1점 차로 따돌리고 K리그 클래식 역전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반면 울산은 2005년 이후 8년 만에 K리그 정상 탈환을 노렸지만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다 잡은 우승을 놓친 울산은 망연자실했다. 김신욱의 아쉬움은 더욱 컸다. 김신욱은 이날 경기 전까지 19골로 득점 선두에 올라 득점왕이 유력했으나 같은 시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 FC 서울의 경기에서 데얀(FC 서울)이 전반 41분 최효진의 패스를 받아 골을 기록하면서 득점왕을 놓쳤다.

김신욱과 같은 19골을 기록한 데얀은 출장 경기 수에서 김신욱(36경기)보다 적은 29경기에 나서 득점왕을 확정 지었다. 꾸준히 울산 공격의 핵으로 활약하며 승승장구했던 김신욱은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컵과 함께 득점왕 타이틀도 내줘야 했다.

한편 김신욱을 따돌리고 득점왕에 오른 데얀은 K리그 최초 3년 연속 득점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정용훈기자 yjw@metroseoul.co.kr

프로축구 전적 1일

전북	1	1	서울
득점 = 레오나르도(전북) 데얀(서울)			
울산	0	1	포항
득점 = 김원일(포항)			
인천	2	1	수원
득점 = 남준재 이석현(인천) 산토스(수원)			

이상화 500m 6연속 1위

'빙속 여제' 이상화(24·서울시청)가 올 시즌 월드컵 시리즈 여자 500m 경기 6연속 우승을 이어갔다.

이상화는 지난달 30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2013~201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3차 대회 여자 500m 디비전A(1부리그) 2차 레이스에서 37초32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상화는 이번 우승으로 올 시즌 출전한 6차례 월드컵 시리즈 여자 500m에서 모두 1위에 오르며 소치올림픽 금메달에 한 발짝 다가섰다. /유순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1일

팀	1Q	2Q	3Q	4Q	합계
KCC	8	20	12	18	58
LG	20	16	25	20	81
KT	26	22	29	18	95
SK	17	27	13	23	80
전자랜드	17	24	25	18	84
인삼공사	22	18	19	18	78
삼성생명	21	11	14	18	65
신한은행	11	14	16	18	59

프로배구 전적 1일

현대캐피탈	3	1	삼성화재
러시앤캐시	2	3	우리카드
기업은행	3	0	인삼공사

오승환 영입 한신 감독 "한국어 배우자"

처음으로 한국 선수를 영입한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가 오승환(31·사진) 더한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1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한신의 와다 유타카 감독은 "인사 수준을 넘어 원활한 의사소통과 팀 적응을 위해 한신의 일본 선수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환과 직접 대화해야 하는 투수 코치, 포수 등은 더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다 감독은 먼저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선언했다. 심지어 오승환이 팀에서 통용되는 사인을 잘 알 수 있도록 일본 선수들에게 한국어 강좌를 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 스포츠는 이를 두고 "오승환이 말과 문화의 차이에서 당황할 수 있는 만큼 한신 구단에서 좀 더 마음을 읽고 다가서면 오승환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풀이했다.

앞서 한신의 나카니시 기요오키 투수 코치는 "오승환이 내년 시즌 3패 이내로 막아주면 좋겠다"며 통역, 숙소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